

Xilinx Zynq FPGA, TI DSP MCU 기반의

프로그래밍 및 회로 설계
전문가

강사 이상훈
(Innova Lee)

Gcccompil3r@gmail.com

학생 김민호

minking12@naver.com

1번

이번 시험 결과와 관련하여 자료구조 과목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보자!

자기 성찰과 앞으로의 포부를 기술하시오.

(자기 성찰을 자기 성찰답게 대충적지 말고 진심과 성심을 다해 적도록 한다)

무언가를 시도하다 실패 하면서 왔기에 “비긴 어게인”이 필요한 시점 이였다.

임베디드 “대체 왜 내 생활에 끼어들었을까?”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도 못한 채 첫 주가 흘렀고 자료구조로 넘어갔다.

1주간의 스파르타식 자료구조 교육과 2주간의 행복한 자율적인 학습에도

나에겐 마음속에 여유, 만족감이 생기지 않았다. (첫날에 함수와 기계어를 배웠다. “뭐지 이게 ?”)

물론 지금도 없다 왜 이렇게 어렵고 , 허리가 아픈가 생각이 더 크다 ...

선생님의 실력과 화법은 존경 그 자체다. 제자인 내가 선생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발악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주말 이 주말 이 아니다 . 서점에서 또 다른 C언어 학습서를 사서 진도도 나가야 하고 ,

오답노트도 해야 하고 마치 내가 매트릭스 주인공인 엔더슨 이라는 느낌이 든다.

“일상으로의 초대” 그 자체다.

남은 7개월 가량을 컴퓨터 인간이 되어야한다.

수학 , 전자, 전기 , 기계 컴퓨터 ? 자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묵묵히 따라갈 뿐이다.

모 자른 실력으로 겨우겨우 들어온 학원이니, 처우나 현재의 실력에 대한 불만은 없다.

열심히 하겠다 . 그나저나 옆 학우들을 참 잘 만나서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나 싶다 .

1년 6개월의 말도 안 되는 수험생활과 그전 귀염둥이 대학에서 4년간의 말도 안 되는 여유로움이 안일한 “김민호”를 만들어 냈다.

무튼 프로젝트이건 앞으로 남은 학습에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서 1인분은 꼭 해야겠다.

근데 그 1인분 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자면서도 계속 “제가 잘 못해서요 호호 ...” 하는 꿈도 꾸기도 한 다 .

우습게도 선생의 지도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못 따라가면서도 학원을 매일매일 나오는 내 스스로가 지겹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쩌다 보니 또 “못한다” “미안하다” 말을 반복 하는 것 같다.

8개월간 학습을 어떻게든 마친다면 ‘멀티플레이어’가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다.

2번

연결리스트에 대한 문제

선입선출을 따르는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

답: 큐

3번

연결리스트에 대한 문제

후입선출 기능을 가진 자료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

답: 스택

4번

트리에 관련한 개념 문제

트리 자료구조는 연결리스트에 비해 어떠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는가 ?

답: 스택과 큐와 덱은 시스템 내부적인 구현에서 사용하기에 내부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성능에 충실한 자료구조, 컴퓨터에 비교적 친화적인 자료구조였다면 트리는 드디어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위해서, 즉 사람이 쓰기 좋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구조.

5번

AVL 트리 개념

AVL 트리와 일반 트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답: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해야 하지만 avl 트리는 좌우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6번

레드 블랙 트리는 왜 사용하는가 ?

기존 트리들과 레드 블랙 트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